

‘문학소녀’를 허하라

—4.19 이후의 ‘문학/청년’의 문화정치학

박숙자*

1. 1960년대 한글세대의 문학
2. 반공적 민족주의와 교양주의의 조우: 문학소녀의 탄생
3. 1960년대 청년과 혁명: ‘문학소녀’의 정치성
4.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를 기억하며

국문요약

‘문학소녀’는 해방후 문화정치의 핵심적 표상이다. 1950년대 ‘문학소녀’가 교양주의를 문화론적 기반으로 한 학원세대 문학독자의 기호라면, 1960년대 ‘문학소녀’는 역사적 주체로 표상된 ‘청년’과 의미론적으로 대립하며 탈역사적인 적대의 기호로 전락한 아류와 부정의 기호이다. 해방 이후 ‘문학소녀/소년’이 1960년대 ‘문학적인 것’의 토양을 이룬 한글세대 문학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취한 다양한 민주주의적 역동과 흐름이 1960년대 공론장 속에서 배제 폄하되는 과정 속에 문학소녀의 표상이 놓이는 것이다. 이는 1960년대 민족주의적 기반 속에서 역사적 주체로서의 ‘청년’의 의미가 과잉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청년’이 국내/국외, 신체/정신, 노동/유희의 의미론적 대립항을 통해 역사적 주체로 재구성된 데 비해 문학소녀는 그 대극의 위치에 놓인다. 이 속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문학소녀는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적폐의 기호로 담론화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장 안에서 ‘문학아류’로 폄하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문학소녀’는 단지 ‘문학작품을 읽고 좋아하는 소녀’의 기술적 정의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읽고 선택하는 책들까지 저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후의 역동적인 실존주의적 흐름까지 외면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문학소년/소녀들이 선취했던 자유주의적 흐름과 지향들이 배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960년대 ‘문학/청년’의 보수성과 엄숙성에 일조했다.

(주제어: 문학소녀, 문학청년, 한글세대, 1960년대, 문학독자, 4.19/5.16, 불란서 시집, 실존주의, 어린학생)

1. 1960년대 한글세대의 문학

4.19 이후 문학장의 변화는 뚜렷하다. 언필칭 ‘문학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다수의 암묵적 동의와 수궁 속에서 ‘문학’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일례로 1950년대 문학과 선긋기를 시도하며 새로운 문학을 창안하겠다는 문학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산문시대』, 『청맥』 『비평작업』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기획들은 정치적 저항의 문화적 변용으로 보일 만큼 참신한 것이었다. 가히 혁명적이라는 수사가 가능할 만큼 기존의 질서와 차별화하며 ‘문학적인 것’의 새로운 의미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학청년’이 등장한다. ‘문청’은 1960년대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세대적, 역사적 주체의 이름으로 부각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청’의 정체성과 의미론적으로 대립하는 부정태로 ‘문학소녀’가 설정된다. 알려져 있다시피 ‘문학소녀’는 “문학을 좋아하는 소녀. 또는 문학적 분위기를 좋아하는 낭만적인 소녀” 정도로, 일반적인 의미

에서 ‘문학을 좋아하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 정도의 의미로 통용되는데, 이들은 1960년대 문학장에서 ‘감상적인 문학’을 애호하는 문학독자에서 더 나아가 ‘문학청년’과 대비되는 문학아류로 배제된다.

그간 이 과정을 두고 문학담론의 진일보한 입론화와 이론화 과정으로 논의해 왔지만, 이러한 평가가 단지 문학 장의 분할로 한정될 수 없는 4.19 이후의 문화정치의 국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5.16 이후 불거진 역사적 주체에 관한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는 점 등을 세밀히 읽어내야 한다. 그간 ‘문학소녀’의 의미를 추적하는 솔한 연구에서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의 의미망 등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¹⁾ 문학소녀 표상이 1960년대 역동적인 담론 쟁투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호라는 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최근 ‘문학소녀’를 문화론적 자장 속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1960년대 문화정치의 중심에서 전유, 배제, 길항하는 과정에 대한 해석이 좀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로 이어지는 문학장의 변화에서 ‘문학소녀’는 문화정치의 좌표이다. ‘문학소녀’는 일차적으로 ‘문학’이 교양이 된 시기

1) 최근 ‘문학소녀’ 연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문화론적 문맥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우선 문학소녀에 대한 연구는 김윤경, 정미지, 김복순, 오혜진, 오영숙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김윤경은 1950년대 ‘여성적인 독서’가 여성규범으로 권장되었다고 쓰면서 여성독자 형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정미지는 1960년대를 전후로 ‘문학소녀’의 기호가 등장하는 문화론적 배경을 당대의 순결이데올로기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복순은 1950년대 ‘소녀’ 표상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 반공주의 담론과 연동시켜 분석하고 있으며, 오혜진은 1960년대 문학소녀가 실존주의 담론과 접촉하지만 반공주의 담론에 포획되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윤경, 『1950년대 여성독자의 형성과 문학규범의 변화』, 동국대 박사논문, 2012.; 정미지,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과 독서양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1.;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2008.; 오혜진, 『카뮈, 마르크스, 이어령』, 『한국학논집』, 2013.6.137-178면.; 오영숙, 『아빠와 소녀』, 『영화연구』, 2009.12. 435-458쪽.)

에 야기된 문학독자의 첫 번째 얼굴이다. 이들은 문학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자 했고, 문학을 통해 자기 감수성을 쏟아놓으면서 ‘문학’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독자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의 얼굴과 이름이 지워졌다. 1960년대 아류로 폄하된 ‘문학소녀’의 의미론적 자장이 문학장 내부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4.19의 의미를 전유하려는 담론 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쯤 물어야 할 것이다.²⁾

2. 반공적 민족주의와 교양주의의 조우: 문학소녀의 탄생

해방이후 학원세대들에게 ‘문학’에 대한 열정과 몰입은 다른 세대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았다. 여학생 중에 ‘문학소녀’ 아닌 자가 없다는 말이 과하지 않았으며 남자대학생 선호하는 직업으로 ‘문인’이 꼽히는 것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순천고 학생회장, 광주일고 학생회장들이 학생문단으로 등장해 1960년대 대표적인 작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³⁾ 때로 문단에 이름을 올리고, 글을 발표하는 일이 ‘문학출세주의’로 오도될 만큼 ‘화려하고 장엄하다고’ 느낄 정도로 ‘문인’이 되는 일은 판사와 검사가 되는 일과 견주어도 좋을 만큼

2) 원래 ‘문학소녀’의 기호는 1920년대 일본에서 전래된 단어이다. 당시 ‘문학소녀’는 ‘연애에 관심 많은’ 자로 함의되면서 ‘불량소녀’와 근사한 거리에서 재현된다. 조선의 사정과 그리 다르지 않았으며 대개의 문학소녀는 문학을 좋아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것에서 더 나아가 ‘연애에 관심이 많은’ 자질로 비춰져 작가 최정희는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 ‘문학소녀’로 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이후 ‘문학소녀’는 학원세대가 놓인 교양주의의 기반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정은 이보다 나아졌지만 분명한 것은 일정한 거리감과 이질감이 반영된 표상이라는 사실이다.

3) 이들이 바로 김승옥, 이청준이다. 김승옥은 『산문시대』 동인 결성과 관련된 일을 회고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떠올린다.

가슴 두근거리는 일로 기억되었다.⁴⁾ 1950년대 학원세대로 불리던 이들에게 ‘문학’은 세계와 만나는 배움의 장이었으며⁵⁾ 당시 현실을 혁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책’으로 상상되었다.⁶⁾

1950년대 학생들이 ‘문학소년’이나 ‘문학소녀’로 성장하게 된 것은 교양주의 확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그리고 이 교양주의의 중심에 ‘문학’이 놓여있다. 1952년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면서 교과서 이외에 학생들이 접할 수 있었던 과외독본은 ‘문학’이었다. 1958년 이후 문학전집 발간이 붐을 이루면서 선택할 수 있는 도서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소설’이나 ‘전기’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교양서적이 ‘문학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서울소재 고등학생들이 읽는 서적을 조사한 한 논문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 ‘소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43.7%이고 여학생의 경우 35.5%이다. 그러나 이 결과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서울시내 고등학생들이 읽는 서적을 분류한 항목이다. 서적의 분류로 나열된 것이 소설, 전기, 콩트, 수필, 시, 평론으로 문학의 외연 안에 놓이는 것이다. 읽고 있는 ‘문학’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서적’을 물어보았지만 그 결과는 ‘문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대규모 문학전집이 1958년과 1959년 사이에 시중에 배포된 것을 감안하면, 또 아울러 문화적 혜택이 가장 높았던 ‘서울시내’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염두에 본다면 ‘문학’에 대한 압도적 인기와 경사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4) 김학길, 『서점풍경』, 『학원』, 1958.

5) 1950년대 학원세대 작가들의 회고담을 분석해 보면, ‘문학’이 ‘세계’와 만나는 가장 직접적 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들에게 문학은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라는 감각에서부터 ‘세상사람들에게 이야기싶다’는 감각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세계가 접촉하는 매체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강은교 외,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문학사상사, 1993; 『나의 문학수업 시절』, 1991)

6) 박승훈, 『여학생문예작품집』, 1954. 평문사, 14면.

〈문학개론〉과 〈문학입문서〉 신문과 잡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름들. 그리하여 그는 다른 책에도 또 다른 책에도 눈이 갔다. 그럴 때마다 그 책에 연관된 어떠한 일상 생활의 사실들이 그의 뇌리를 찾아들었던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가 화려했고, 장엄했고, 가슴 두근거리는 것들이었다. 물론 그것은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책방에 들어서서 책들을 하나하나 대해 볼 때마다 향유 느끼는 심정이었지만.
(김학길(김승옥), 『서점풍경』, 『학원』, 1958)

읽었다고는 하지만 지루하고 무슨 소린지 잘 알 수가 없는 지문은 성큼성큼 뛰어넘고 멋진 대화같이 느껴진 것만을 읽어가는 괴상한 독법으로 읽은 것이었다. 겨울밤에 가슴에 베개를 괴고 해남물고구마를 늘어붙도록 찌가지고 먹어대며 이형식에게로 허송에서 임궽정에게로 그리고 오필리아에서 파우스트로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그러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설책을 읽어서 넌 무엇하려는 것이냐는 푸념이 어머니의 주된 공연 프로그램이었다. 판사나 검사가 되지 않고 문학 나부랭이를 했다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를 꾸짖었다.
(김현, 『왜 문학은 되풀이 되는가』, 문학과지성사, 1977)

해방이후 전쟁의 트라우마와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던 사회문화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더욱이 이 황폐한 교육 여건 속에서 ‘문학’이 교과서 외의 유일한 독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볼 때 한글세대의 존재기반이 ‘문학소년’이자 ‘문학소녀’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문학소년’과 ‘문학소녀’는 해방이후 배움을 통해 세계와 접속하고자 하는 학원세대가 당시 폭넓게 확산된 교양주의가 만나는 과정에서 산출된 문학독자인 것이다.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국내의 서적을 선택하는 비율은 <표2>에서 보듯이 국외 서적이 나이에 비례해서 증가되는 추세이며 서울에 재학중인 여자고등학생의 선택비율은 80퍼센트로 압도적이다. 그만큼 학령이 높아질수록 외국서적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한출판협회에서 1964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후감

| 남자 | | | | | 여자 | | | | |
|------|----|----|------|-------|------|----|----|-----|-------|
| 중학교 | 서울 | 국내 | 138명 | 51% | 중학교 | 서울 | 국내 | 117 | 43.3% |
| | | 국외 | 132명 | 49% | | | 국외 | 153 | 56.7% |
| | 수원 | 국내 | 172명 | 64% | | 수원 | 국내 | 153 | 56.7% |
| | | 국외 | 98명 | 36% | | | 국외 | 117 | 43.3% |
| 고등학교 | 서울 | 국내 | 73명 | 27% | 고등학교 | 서울 | 국내 | 55 | 20% |
| | | 국외 | 197명 | 73% | | | 국외 | 215 | 80% |
| | 수원 | 국내 | 104명 | 38.5% | | 수원 | 국내 | 71 | 26.3% |
| | | 국외 | 166명 | 61.5% | | | 국외 | 199 | 73.7% |

표 1 중고등학생들의 읽는 서적의 종류(국내/국외), 『교육』 9호, 1959.3

| | | 1 | 2 | 3 | 합계 | 비율 |
|------------|----|----|----|----|-----|------|
| 고등학교 남자 | 소설 | 41 | 37 | 40 | 118 | 43.7 |
| | 전기 | 28 | 19 | 31 | 78 | 28.6 |
| | 풍토 | 8 | 10 | 6 | 24 | 8.9 |
| | 수필 | 5 | 10 | 6 | 21 | 7.7 |
| | 시 | 6 | 9 | 5 | 20 | 7.7 |
| | 평론 | 2 | 5 | 1 | 8 | 2.9 |
| 고등학교 여자 | 소설 | 36 | 30 | 30 | 96 | 35.5 |
| | 전기 | 20 | 15 | 12 | 47 | 17.4 |
| | 풍토 | 7 | 7 | 9 | 23 | 8.4 |
| | 수필 | 12 | 14 | 11 | 37 | 13.4 |
| | 시 | 10 | 18 | 18 | 46 | 17 |
| | 평론 | 5 | 6 | 10 | 21 | 7.4 |

표 2 『서울소재 고등학생들이 읽는 서적 종류』 『교육』 9호, 1959.3

을 공모하는데 대상도서 전부가 외국소설인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서적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한 통계조사에서 나타나는 바 서점에서 직접구입의 비율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학생들의 국외서적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50년대

문학소년, 문학소녀가 놓인 문화론적 자장의 일면이다. 이들이 접하는 정보와 지식의 심도가 비균질적인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 점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면이지만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소녀가 접속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의 심도와 영향력을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⁸⁾ 더욱이 폭넓게 확산된 교양주의의 근간이 고전중심의 세계문학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후의 새로운 서사들이 시간차 없이 유입·유통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1960년대 문학적 토대에 대한 이들의 고려는 과하지 않다.⁹⁾

그러나 문학소녀의 문화론적 토대 이면에는 교육적, 제도적으로 독려되고 강화되는 반공적 민족주의의 이념이 한 권에 놓여있다. 1950년대 ‘문학소녀’는 1차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었던 반공적 민족주의 교육과정과 일정정도 연동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절합되는 측면이 분명하다. 또 이 속에서 ‘문학소녀’는 성별화된 기호이기도 하지만, 당시 교육과정 안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일례로 해방 후 창간된 『여학생』 잡지의 편집자는 ‘여학생 잡지가 아니라 소녀’ 잡지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힌다.¹⁰⁾ ‘여학생’과 ‘소녀’의 차이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여학생에 대한 이

7) 『실존문학과 두 여고생』, 『경향신문』, 1960.8.21

8) 더욱이 강신재, 전해린, 한무숙 등 당시 젊은 작가, 문사들의 작품들은 전후세대의 진취적 감수성으로 성규범에 대한 일탈과 해체 등을 분명하게 드러낸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아프레겔’은 이러한 반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다. ‘아프레겔’을 여성의 기호로 국한시켜 ‘아프레겔’로 오역, 번역한 것은 전후세계의 역동성을 성별 기호를 통해 배제하려는 담론의 일면이다. ‘아프레겔’은 ‘겔’의 기호로 번역되었지만, ‘아프레겔’의 음가적 유사성에서 비롯된 기호이기 때문에 ‘겔’에 국한시켜 논의하기보다 젠더규범이나 성별기호에 따른 차별과 배제 등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9) 줄고, 『100권의 세계문학과 그 적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4. 3.

10) 『여학생』 잡지는 1949년 11월 월간 잡지로 창간되었지만, 그 이듬해 전쟁 발발이후 중단되었다가 1965년 재창간된다. 해방후 ‘여학생’의 의미를 담론화하고자 한 교육문에 잡지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여학생이 많이 본 잡지는 『여원』, 『학원』, 『아리랑』 등이 꼽힌다. 『여원』의 경우 ‘사춘기 소녀’를 독자로 하는 기사가 많이 편집되어 있

미지가 ‘검은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것으로 상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소녀가 지닌 순결과 찬란한 꿈을 곧 내가 가장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어서 ‘소녀’의 함의가 훼손되지 않은 몸과 순결한 내면의 상징으로 사유되고 있다. 물론 이 문맥에서 ‘소녀’의 이미지는 전후의 훼손된 신체로 상징된 남성들의 판타지의 결과이다.¹¹⁾

흥미로운 것은 1949년 여학생의 창간호 표지에서 보면 ‘소녀’의 시각적 기호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복을 입고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소녀’의 이미지를 ‘한복’으로 재현하고 있는 이 삽화는 1960년대 이후 ‘서구적인 기호’로 채색된 ‘소녀’의 상과 사뭇 다르다



그림 1 『여학생』 표지 (1949.11)

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주의적 함의가 소녀의 순결한 기호와 만나고 있는 것이다. 본문의 내용 또한 그러하다. 『여학생의 수기』라는 부제가 붙은 임옥인의 소설을 보면 “해방이 왜 이러며 삼팔선은 무이며 그리고 우리 민족은 영원히 이런 불행과 비애 속에 살아야 하느냐고 끝없는 회

나 초기 『여학생』 잡지에 비해 좀더 자유로운 성담론이 기사화되는 게 특징이다. 『여원』이나 『학원』 등이 반공적 민족주의 경향에도 자유주의 풍속을 담아내는 기사와 글이 적지 않게 실린 잡지라면, 1949년, 1950년대 유통된 『여학생』은 좀더 반공적 민족주의의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 잡지라고 볼 수 있다.
11) 김현주는 1950년대 『여원』을 분석하면서 젠더 규범에 따라 해체된 가족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위치가 축소되었지만, 그 이면에 여성의 자율권이 확장되었다고 평가한다.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18호, 2007.12, 387-416쪽.)

의”를 안고 있는 ‘소녀’가 등장한다.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애국’의 기호와 초월적으로 등치되면서 소녀를 통해 애국심을 설파해내는 것이다. 이는 여학생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책으로 당시 명사들이 꼽고 있는 책에서도 나타난다. 김동리는 『신약성서』, 김기육은 『끼리부인』, 박승호는 『건국이념』, 박순천은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 등으로 여학생에게 추천하는 책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은 ‘민족’과 ‘자유’, 그리고 그 대항자로서의 ‘여성’이다.¹²⁾ 당시 남한이 직면한 전후의 황폐화된 국가를 회복하고자 하는 낭만적 지향이 피력되고 있는 것이다. 초창기 『여학생』 잡지가 보여주는 ‘소녀’의 기호는 민족적 활로를 찾기 위한 상상적 기획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민족의 이념을 ‘건국’과 ‘자유’의 기호를 통해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¹³⁾

그렇다면 왜 이 잡지에서 민족주의적 비전이 ‘소녀’를 통해 강박적으로 실현되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민족주의적 지향과 낭만주의적 상상이 충돌 없이 공존하면서 ‘소녀’의 기호 속에 담겨지는 과정이다. 『여학생』 편집자가 구성해내고 있는 것처럼, 반공적 민족주의의 기대와 낭만주의적 상상이 모순없이 절합되는 지점은 바로 훼손되지 않은 몸을 기반으로 남성적 판타지를 작동시키는 감성적 소녀를 통해서다.¹⁴⁾ 소녀의 낭만성이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사춘기 소녀의 감수성을 넘어서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¹⁵⁾

12) 『창간사』, 『여학생』, 1949.11.

13) 이와 관련 김윤경은 1950년대 순진하고 감상적인 여성의 독서태도가 권장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14) 소녀의 발그레한 건강한 신체가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어떻게 전용, 변용되는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가상의 소녀가 담론상에 부활하는지 하는 문제는 차후의 논의로 돌린다.

15) 당시 외국인 신부가 외국의 소녀와 한국의 소녀를 비교한 글이 흥미롭다. 기본적으로

『여학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시 ‘문학소녀’가 독려되고 있는 사실은 여러 문헌에서 나타난다. 이를테면 『여학생 문예 작품집』이 그러하다. 이 책은 여학생들의 쓴 시와 소설 수필의 잘된 사례를 묶은 뒤 각 작품마다 교사가 첨언하는, 말그대로 ‘작품집’으로 당시 ‘좋은글’의 기준을 암암리에 알 수 있는 참고서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좋은 글’의 기준이 ‘소녀’에게 부과되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으로 연동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소녀는 삼백년이 계속 되어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울 줄 아는 착한이어야 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서문에서 나타나는 바, 소녀의 글쓰기를 ‘소녀적인 글쓰기’로 등치시켜낸다. ‘문학소녀’는 이 과정에서 파생된 글쓰기의 결과이다. ‘문학소녀’는 ‘소녀’의 비현실적이고 탈역사적인 물질적 기반을 보충하는 맥락이자 토대이다. 이는 1950년대 글쓰기 제도 안에서 두루 나타난다.

(평) 세계역사를 고향으로 가졌든 여학생의 애절이여!

(평) 삼천만의 숙원을 위하여……

(평) 무서운 음악을 듣는 듯한 어린 녀의 슬픔이여!

(평) 삶과 죽음을 뚫고 흐르는 영원한 슬픔이여! 외로운 녀의 울음이여!

평) 죽은 시체는 과거의 부서져야 할 썩어진 모체, 아들은 새로 솟아 오르는 대한민국! 허나 남으로 얼어붙은 땅을 달리는 UN군의 차가 아 우는 애를 안고 데려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UN이여! 한국의 울음을 들으라! 저 발버둥치는 소리를! 이 안타까운 약소민족의 서글픈 울음을!

로 ‘소녀’가 사춘기의 감수성에 의해 낭만적인 데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한국 소녀들은 모두 속까지 비슷하게 보인다’고 할 정도로 획일적인 느낌을 주며 또한 ‘한국 소녀들은 더욱 특수한 낭만주의자’처럼 보인다고 쓰는데 이를테면 편지를 쓰면 ‘비슷한 말로 쓰면서 ‘수녀’의 생활까지도 낭만적으로 사고하는 것같다고 적고 있다. 이는 순결을 강조하는 반공적 민족주의 질서 속에서 낭만적 성격이 금욕적이고 추상적인 감정으로 나타나는 일면이다.(리처드 러트, 『내가 본 한국의 소녀상』, 『여학생』, 1965. 12. 86-88쪽.)

이 책을 엮은 박승훈은 배화여고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이다. 그런 만큼 당시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글쓰기의 일면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교사가 여학생의 글을 침삭하는 것을 보면 학생들의 글만 큼이나 감상적이다. 학생들의 쓴 글을 기반으로 ‘좋은 글’의 사례를 제시하는 의도로 엮어진 책임에도 이 책을 관통하는 ‘좋은 글’의 기준이란 ‘감상성이 농후한’ 글이다. 때문에 한 학생이 자신이 경험한 일상적 현실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글보다는 ‘언제 네 품으로 다시 갈 수 있으랴! 오늘도 슬픈 속도로 하얀 길을 거닐고 또 거닌다.(81쪽)’ ‘씨늘한 영원의 운명의 손길이어!’(83쪽)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감정이 분단의 현실과 결합한 글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문 중심의 문장으로 초월적으로 주제가 주어진 문장¹⁶⁾, 다시말해 메시지가 ‘반공’과 ‘민족’을 추상적으로 지시하는 글이 좋은 글로 평가된다. 그런데 지시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글의 특성상 감상적 정조가 농후하다. ‘삼천만의 숙원’, ‘약소민족의 서글픈 울음’ 등으로 감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당연한 일이지만 남학생들이 쓴 글이나 여학생이 쓴 글이나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선별된다. 때문에 좋은 글의 기준 속에서 ‘문학소녀’와 ‘문학소년’은 대립하지 않는다.

살아가는 것인가/아니면/ 죽어가는 것인가//가프시 여겨주는/하나의 안정된 자세도 없이/ 아무데 돌아가 묻쳐버릴/서러운 가슴//왈각 솟구칠 듯한/피/ 피를 머금고 발버둥치는/시간이 가까워오는 /살아가는 것인가/아니면/ 죽어가는 것인가¹⁷⁾

어쩌면 이렇게 절박한 감정의 시를 썼을까 선자로서도 놀랍고 의아스러울 정도다. 앞절과 끝절의 -살아가는 것인가 죽어가는 것인가라는 표현은 어느 성인

16) 구자균, 『작문교육의 문제점』, 『동아일보』, 1959.11.27.

17) 『목숨』, 『학원』, 1958. 11. 211쪽.

의 시만큼 심각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읽혀진다.¹⁸⁾

해방 후 ‘문학소녀’는 학원세대의 교양주의 확산에 따른 일반적인 문학독자의 얼굴이다. 역경을 딛고 근대적 주체로 성장해가고 하는 이상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던 주체들로서 이들이 내장한 이상주의적 열정은 당대 교양주의가 가진 힘의 일면이다. 이 문학독자들은 성별의 차이로 구성되지 않으며 소녀적 자질이 오히려 보충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된다. 물론 이 속에서 반공적 민족주의의 이념적 계기를 통해 교양주의의 활력과 리듬이 변형되기도 한다. 『안네의 일기』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반나치에 희생되는 ‘소녀’의 내면과 글쓰기가 냉전체제 속에서 반공주의의 역동을 만들어내는 매개로 상상되는 사례로 ‘문학/소녀’ 표상이 반공주의의 담론 속에서 절합되는 측면이 분명하다.¹⁹⁾ 이처럼 전후 ‘문학소녀’의 표상은 다소 양가적인 형태로 교양주의의 열정과 반공적 민족주의의 역학 속에서 실현된다.

18) 박두진, 『절박감과 엄숙감을 주는 시다』, 『학원』, 1958. 11. 211면.

19) 『안네의 일기』는 해방이후 학생들의 과외독본으로 장려된 1950년대 베스트셀러이다. 이 책의 인기는 대한민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58년 미국에서는 『안네의 일기』를 반나치의 이념을 선전하는 영화로 제작했으며, 급기야 그 해 미국의 대표 영화로 칸느영화제에 출품되었다. 또 이 영화는 1959년 타임지가 선정한 베스트영화로 꼽혔으며 한국에서는 1960년 국립극장에서 연극으로 상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6년 스위스 바젤의 안네 프랑크 재단에서는 ‘글쓰기에 약간 재능이 있을 뿐 평범한 안네가 완벽한 반나치의 투사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진짜 일기를 발간하기도 한다. 1947년 발간된 『안네의 일기』가 ‘가짜’였음을 공인하는 기사이다. 안네가 원래 쓴 일기는 성에 눈떠가는 소녀의 모습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런 내용이 전부 삭제되었다.(『안네의 일기』 30%는 아버지가 고쳐, 『경향신문』, 1996.10.25.)

3. 1960년대 청년과 혁명: '문학소녀'의 정치성

4.19 이후 역사적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청년'의 정당성을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그 대극의 자리에 내세워지는 것이 '문학소녀'라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컬하다. 적어도 1950년대 국면에서 '문학소녀'는 성별화된 기호였지만 '문학소년'과 의미론적으로 대립하지 않았으며 이상주의적 열정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 맥락 속에서 활용된 기호였다. 그럼에도 1960년대 들어 '문학소녀'는 역사적으로 표상된 '청년'의 기호와 대립하는 기호로 등장한다. 이는 문학 장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올바른 역사적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다. 굵고 빛을 저가면서도 사치와 호화에 자유를 구가하려는 머리를 돌려야 하는 일이다. 공장의 굴뚝이 하품을 하여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씻을 일이다. 애인만 만나면 택시를 타야 하고 값비싼 식당에 들어가야 한다는 허식을 일체 털어버려야 하는 일이다. 소를 팔아도 대학을 다녀야 한다는 학구열의 탈선을 삼가는 일이다.

땀을 흘려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이등 객차에/불란서 시
집을 읽는/소녀야/나는, 고운/ 네/ 손이 밍더라

우리는 일을 하여야 한다. 고운 손으로는 살 수 없다. 고운 손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못살게 되었고, 빼앗기고 살아왔다. 소녀의 손이 고운 것은 미울리 없겠지만 전체 국민의 1% 내외의 저 특권 지배층의 손을 보았는가. 고운 손은 우리의 적이다. 보드라운 손결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할퀴고, 살을 앗아간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러한 정객에 대하여 증오의 탄환을 발사하여 주자. 영원히 그들이 우리를 부리는 기회를 다시는 주지 말자. 이러한 자각, 이러한 결의, 이러한 실천이 있는 곳에 비로소 경제도 재건되고 정치도 정확되고 문화도 발전되고, 사회도 건전하고, 종교도 승화되는 것이다. 이것 없이 우리에게는 기적도 발전도 바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자' 기름으로 밝는 등은 오래가지 못한다. '피'와 '땀'과 '눈물'로 밝히는 등만이 우리 민족의 시계를

올바르게 밝혀줄 수 있는 것이다.²⁰⁾

박정희는 1963년 ‘5.16’의 당위성과 ‘청년’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글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를 ‘5.16 혁명’의 대극의 자리에 세운다. 이 시의 문맥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우선 ‘고운 손으로 살 수 없다. 고운 손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못살게 되었고, 빼앗기고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소녀의 고운 손’을 민족적 가난과 빈곤의 원인으로 지적한 후, 그 ‘보드라운 손결’을 바로 ‘특권계급층의 손’과 등가화한다. ‘불란서 시집을 읽는’ 자는 일차적으로 ‘문학소녀’이지만, 실은 노동하지 않은 자의 손인 동시에 이차적으로는 ‘소를 팔아도 대학에 다녀야 한다’고 믿는 학구열 강한 청년 전체를 그 지시 대상으로 한다.²¹⁾

이는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공분된 ‘특권층의 사치와 호화로움’에 대한 분노를 ‘소를 팔아도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대학생’의 허세와 등가화하는 것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외국/자국(민족), 사치/절약, 책/노동, 소녀/청년 등의 이분법으로 혁명의 당위성을 설명해내는 것이다. 이 글의 담론적 효과는 분명하다. 당시 시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이를테면 특권층의 호화로움이 지닌 ‘노동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책 읽는 청년’의 ‘정신적 행위와 겹쳐 놓은 뒤, ‘책 읽는 자’의 ‘책’을 ‘서양으로 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실존주의 담론의 근거지인 ‘프랑스’로 표상하는 기호의 가공을 거쳐, 마지막으로 이 허황하게 책 읽는 자를 ‘소녀’로 봉합해버리는 담론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란서시집을 읽는 소녀’는 ‘청년’과 대립되는 존재로 표상된다.²²⁾

20)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지구촌, 1997. 275-276쪽.(원래 『국가와 혁명과 나』는 향문사에서 1963년 발간되었지만 이 글에서는 1997년 재발간된 지구촌본으로 한다)

21) 이 자작시와 관련해서 복도훈은 경제우위의 ‘발전’ 개념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복도훈, 『1960년대 한국 교양소설 연구』, 동국대박사논문, 2014.)

이 속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의 이미지가 분명해진다. 민족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서구주의에 정신을 팔고 있는 노동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이 비유는 4.19 이후 공론장의 아젠다로 부각된 ‘근대화’와 ‘민족주의’를 누가 어떻게 전유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다.²³⁾ 공분의 대상인 ‘특권층’에 대한 함의를 ‘노동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해내는 것과 동시에 불란서 시집을 읽는 자의 손을 ‘고운 손’으로 묘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책을 읽는 자 전체를 노동하지 않은 자로 등치시켜내고 있다. 이는 4.19의 역사적 무게를 덜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4.19와 5.16의 차이를 ‘대학생’과 ‘청년’으로 대립시켜내고 있기 때문이다.²⁴⁾ 이 가공할 만한 기호의 배치 속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은 ‘불란서’가 지시하는 실존주의적 지향과 역동, ‘시집’이 비유하는 문학적 교양주의의 숨결들, 그리고 ‘소녀’의 기호 이면에 놓인 1950년대 한글세대의 독자들이다.²⁵⁾

4.19 혁명은 여러 논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누가 역사의 주체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기성세대에 결별할 수 있는 신세대 ‘청년’을 등

22) 권보드래는 ‘5.16쿠데타 이후 혁신정당마저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를 정도’라고 언급하면서 ‘박태순이 보여주듯 이청준이 되듯 4.19와 5.16을 분리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한다. 4.19와 5.16의 내적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권보드래, 김영찬 등에게서 보여지는데 이렇게 볼 경우 5.16이후 군사정보의 담론 전략과 대중정치의 문제가 오히려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3. 58-59쪽)

23) 김건우, 『1964년의 담론지형』, 『대중서사연구』 22호, 73쪽.

24) 당시 ‘새로운 젊은이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논자에 의해 제기된다. 다만 ‘청년’이 누구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세대로서의 청년의 필요성은 이미 합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론화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역사적 주체로서의 청년’의 필요성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논의도 더러 보인다(김기두, 『새로운 젊은이가 나와야 한다』, 『청맥』 3호, 1964.11. 18쪽)

25) 이와 관련 4.19이후 ‘정치는 정치인에게, 학생은 학원으로’라는 요약되는 담론상의 변화로 인해 대학생의 학문장이 ‘순수의 영역’, 혹은 ‘성역’으로 ‘현실로부터 분리된 순정한 공간에 놓이게 된다’는 소영현의 지적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소영현, 『대학생 담론을 보라』, 『문학과 사회』, 2010.2. 266-268쪽)

장시켜 내고 있다. 청년은 기성세대의 단죄를 모의한 형제들이며 이들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²⁶⁾ 이는 1963년을 전후한 시기에 새로운 '신어'로 유행했던 '세대교체론'의 맥락과 맞닿아 있으며 새로운 역사적 주체로서의 '청년'에 함의이기도 하다.²⁷⁾ 4.19이후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는 변화는 '젊은층 멤버로 분위기에 매력'을 느끼는 동인지 발간과²⁸⁾ '전례없는 치열한 문학열'²⁹⁾이다. 젊은층의 문학참여가 고양된 가운데 '새삼 우리에게 어떤 의미있는 몸짓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전하는 이 기사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문학의 주도층이 기성세대에서 신인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인상이다.

태초와 같은 어둠 속에 우리는 서 있다. 그 슬한 언어의 난무 속에서 우리의 전신은 여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있다. 이 천년을 갈 것 같은 어두움 그 속에서 우리는 신이 느낀 권태를 반추하며 여기 이렇게 서있다. 참 오랜 세월을 끈덕진 인내로 이 어두움을 감내하여 우리 여기 서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다. 이 어두움이 신이 인간창조와 동시에 除去된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서도 새로운 언어의 창조로 제거되어야 함을 이제 우리는 안다. 유리아의 얼굴을 발견한 신타 마리아의 얼굴의 일군이 우리는 기꺼이 된다. 얼어붙은 권세와 구역질나는 모든 설법을 우리는 저주한다. 뼈를 가는 어둠이 없었던 모든 자들의 안이함에서 우리는 기꺼이 탈출한다. 썩은 유리아의 얼굴만을 애원물처럼 만지고 있는 이카루스의 어찌면 절망적인 탈출없는 모든 자들의 언어와 우리는 결별한다. 새로운 유리아의 얼굴을 발견함이 없는 모든 자와 우리는 결별한다.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욕망을 처리하기 위해 집을 나가는 탕자를 우리는 배운다. 모든 어두움에 파

26) 복도훈은 4.10 혁명이 개인의 자율성 및 자기경험의 확장을 중요시했다면 5.16 군사 쿠데타에서 두드러진 '청년'담론은 국가적 출세와 개인적 출세 두가지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경제발전 중심의 논의였다고 주장한다. (복도훈, 앞의책, 18-24쪽)

27) 『민정이양과 정치풍토 지상 심포지움-세대교체론』, 『경향신문』, 1963.5.4.

28) "당시 서울에서 발간되는 문학동인지로는 『60년대대화집』, 『현대시』, 『산문시대』, 『영어영문학』, 『독일문학』, 등이 있다."고 기사화되었다.(『보기엔 허술해도 알뜰한 정성』, 『경향신문』, 1962.11.28.)

29) 『전례없이 치열한 문학열』, 『경향신문』, 1962.12.17.

물히 죽어버린 언어를 박차는 언어를 박차는 의지를 우리는 배운다.³⁰⁾

이러한 분위기는 문학 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역사 강박’이라고 볼 정도로 새로운 역사의 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문학 장의 분화, 분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산문시대』 동인들의 창간사에서도 이같은 측면은 드러난다. 창간사의 시공간적 배경은 ‘태초의 어둠’으로 역사적 시간이자 ‘기원으로서의 역사’이다. 이들에게 ‘어둠’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창조이전의 시간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분명하게 선보인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의식들에 대한 반복적 강조는 『산문시대』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김현의 『처용의 노래』에서는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나의 사고만이 덩그러니 매달려있었다’라고 했으며 최하림의 『여름시집』에서는 ‘이 동굴같은 비참한 분위기 속에서...수많은 눈들이 수많은 손들이 묘하게 흔드는 자세로 사방에 자리해 있었다’라고 쓰고 있다. ‘어둠’은 새로운 역사적 시간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이 시간은 새로운 ‘창조와 ‘기원’의 시간이다. 또 그 속에서 반짝이는 눈들이 ‘탈출을 모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서 역사적 주체로 지목하는 주체가 청년이지만, 그 함의는 ‘문학소년이 아니’라는 부정태로서만 선언된다. 산문시대 동인들이 스스로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문학소년’은 청년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반복적으로 표상된다.

처음엔 『질주』라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건 너무 문학소년 냄새가 난다고 하여 내가 내세운 산문시대로 결정하였다. 작품들은 가능하다면 소설을 두편씩 쓰기로 하였다.³¹⁾

30) 『산문시대』, 1962.6.

31) 김승옥, 『산문시대 이야기』, 『대학신문』, 1973.11.5.

『산문시대』 동인들은 동인지 이름을 정하는 자리에서 동인지 제호를 ‘질주’라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건 너무 문학소년 냄새가 난다’고 하여서 ‘산문시대’로 바꾼다. 분명치 않지만 이들이 스스로의 문학을 규정하는 자리에서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문학소년’적인 어떤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문학의 출발 지점에서 적어도 문학소년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이는 당시 문학장에 던져진 새로운 주체의 자격에 대한 반응으로 4.19의 정당성과 그에 걸맞는 주체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얼굴에 중학생이 즐거운 야구를 하는 것 같은 즐거운 빛이 있었습니다. 멋지게 학생을 후려갈겨서, “어이구”하고 학생이 쓰러지는 통쾌한 호음권을 친 뒤의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거슴츠레해진 눈과 뼈죽 한쪽으로 쏠린 입술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황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릴 적에 길에서 보는 개들의 교미 광경이 언뜻 떠올랐습니다. 수놈이 목적을 달한 뒤에 거슴츠레한 눈과 기름 흐르는 얼굴에 나타나는 상쾌한 황홀감 그런 것을 이들 경찰의 얼굴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느틈엔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흙덩이와 돌을 경찰을 향해서 막 던졌습니다. 다른 일부의 학생들은 문교부속으로 들어가서 떨어 널려있는 돌을 집어서 적선동 쪽의 경찰에게다가 비오듯 퍼부었습니다. 경찰을 건디다 못해서 이쪽으로 최루탄을 막 던졌습니다. 모두 눈이 아프고 따가워서 앞을 볼 수 없었으므로 뒤로 주춤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형님들 비겁하면 안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소리치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³²⁾

사실 4.19 이후 여러 문면에서 반복적으로 ‘어리다’는 자질이 등장하고 있다. 누가 어리고 누가 어리지 않은가하는 질문과 그에 따르는 수사는 행위의 적법성과 정당성 문제까지 포함하는 다소 정치적인 표현이다. 이를테면 소설가 조용만은 4.19 진압경찰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얼굴이 즐거운 야구를 하는 ‘중학생’으로 보인다고 쓰고 있다. 어떤 행

32) 조용만, 『표정』, 현대문학, 1961.4.

위의 가치평가를 하는 지점에서 부적절함을 표현하는 언사로 ‘어리다’는 자질을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비유적 표현만 보더라도 진압 경찰을 중학생으로, 시위대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중고등이후의 학생으로 묘사하면서 이를 비역사적인 행위와 역사적인 행위로 대립시키는 것은 ‘어리다’는 수사가 단지 수사 이상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4.19혁명에 평가에서 공공연히 드러나는 ‘어린 학생’의 담론 전략과 맞물리는 것이다.

당시 문리대수학과 3학년이던 김치호군은 총상을 입은 채 어린 학생부터 먼저 수혈하도록 하라고 수혈을 거부 끝내 숨졌다. 이 거룩한 죽음을 잊지 못한 학우들이 정성을 모아 1년 뒤인 61년 4월 19일 문리대교정에 기념탑을 건립했다.³³⁾

당국은 “학원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는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항의를 “야당에 선동당했다” “공산당을 이롭게 한다는” 등 이유를 붙여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만 들었다.³⁴⁾

이는 그간 한국의 전통과 기원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사회적 의제로 제시된 자리에서 이들이 반복적으로 담론화한 것은 ‘어린 학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4.19를 평가하는 기억 속에서 재구성되면서 ‘어린 학생’의 행위로 암암리에 정리되고 있다. ‘문학소년’적인 것과 ‘어린 학생’이 어느 지점에서 연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5.16의 역사적 당위를 설명하는 글에서는 바로 ‘어린 학생’의 기호를 ‘책읽는 학생’으로 범주화한 뒤 ‘청년’의 기호와 대립시켜내면서 4.19의 가치를 전유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난다.³⁵⁾ 이 결과로 남게 된

33) 『서울대 학생혁명 기념탑』, 『동아일보』, 1980.4.16.

34) 『비화-제일공화국 4.19 혁명(9)』, 『동아일보』, 1975.4.12.

‘불란서시집을 읽는 소녀’적인 것은 혁신성과 진취성이 보수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가 접속하는 다양한 교양주의와 대중서사의 흐름을 놓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³⁶⁾ 한국문학의 새로운 적자와 기원이 출몰하면서 한국문학 안에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었던 다양한 흐름들이 대거 소거되는 것또한 분명한 양상이다.³⁷⁾

이에 따라 ‘문학소녀’의 의미도 달라진다. 1960년대 ‘문학소녀’는 다양하게 전유되던 긍정적 기능의 자리를 반납하고 아직 배움이 필요한 ‘주니어’이자 ‘학생’, 그리고 ‘여성’과 ‘연애’라는 파편화된 기능만을 떠맡게 된다. 이 위치 이동은 4.19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긴밀하게 연동한다.

『여학생』을 창간함에 있어 이 교양지가 회의에 빠진 우리 여학생들에게 꿈이 되고 청량제가 될 수 있기를 빌며 또한 여러분들이 여성으로서의 교양을 쌓고 실력을 길러 사회의 기초가 되고 훌륭한 한국의 여성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것으로 창간사를 대신합니다.³⁸⁾

우리의 소녀상은 그 어느 나라의 소녀들 보다 고결하고 아름다움 성품을 지니 계끔 자라나고 싶었기에 교실에서나 광장에서 거리에서 보이는 그 모습은 태양 아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떳떳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도 어딘가 현대문

35) 이와관련 권명아는 ‘학생이 혁명적 주체의 자리에서 문제집단으로, 나아가 특수범죄의 주체로 자리가 할당되는 과정은 국가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4월혁명의 자리가 삭제되는 대신 3.1 정신이라는 먼 기원의 의미가 확대되는 과정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미성년과 하층여성이 부적절한 정념을 소유한 자로 담론화한다고 지적한다.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272-275쪽)

36) 1960년대 ‘문창’이 하위문화, 대항문화로 분리된 채 ‘대학생 문단’이라는 엘리트주의로 나아간 사정과 연결된다.

37) 이와 관련해서 당시 청년문화를 논한 남재희의 글은 주목할 만하다. 청년문화의 핵심이 ‘대항문화’ 형성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 글에서 프랑스 68혁명에서 주역이 되었던 것은 ‘대학생’이고 이들이 ‘하위문화’, ‘대항문화’ 등을 만들어내며 68혁명을 가속화시킨 데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대학생들이 ‘통념적 진리에 집착하는 경향을 띠다고 쓰고 있다.(남재희, 『68혁명 40주년과 청년문화론』, 『관훈저널』, 관훈클럽, 97쪽)

38) 『여학생』, 1965.12.

명을 받아들이는 수용태세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문화문명의 형성을 위해 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³⁹⁾

1965년 『여학생』이 재창간되는 과정은 이러한 의심을 부추긴다. 『창간사』에서 편집자는 여학생의 행동과 위치를 은유적으로 언급하는데 그 내용은 모호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4.19에 대한 평가와 여학생의 위치를 연결시켜 평하는 가치판단적인 언설이다. 이를테면 여학생이 거리와 광장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어딘가 현대문명을 받아들이는 수용태세에서 나아가지 못했다’는 진단을 내리는데, 이 두 가지 문장은 ‘학생이 광장에서 한 어떤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문장과 ‘이 행동은 현대문명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회의에 빠진’, ‘거리와 광장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라는 표현 등으로 내용이 간접화되어 있지만, ‘부끄러움’과 ‘떴떴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맥의 특성을 볼 때 학생들의 현실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나아가지 못했다’, ‘비약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 진단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생의 사회진출을 ‘시기상조’로 평하는 가치지향적 언설이다.

왜 어른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지 소녀는 알 수 없다. 소녀는 어른들의 추악한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알면 큰 일이다. 알려고 애써서는 안된다. 생존경쟁이니 약육강식이니 하는 말을 배울 필요가 없다. 결국 나중에 그러한 말의 뜻을 알고야 말 날이 올텐데 무엇 때문에 미리 알려고 하겠는게 너무 아는 것은 탈이다.... 어느 날엔가 진달래 밭에서 어른들의 싸움이 벌어졌다. 시시한 싸움이다. 몇마디 오고간 것이 주먹싸움으로 변하고 주먹싸움은 유혈로 발전한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빛깔의 대조이랴! 분홍진달래빛과 입이 터져 흐르

39) 『편집후기』, 『여학생』, 1965. 416.

는 쓸모없는 인간의 핏빛 얼굴에 마구 묻은 피, 그것은 인류를 타락시킨 오욕의 피인 것이다..... 나는 갑자기 의분에 불타는 기사가 된다. 소녀는 내 속된 마음을 씻어주었던 것이다. 나는 영원히 소녀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일체의 악에서 소녀를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서투른, 그러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나는 올려야겠다.⁴⁰⁾

또한 이 잡지의 재창간 기념 특집인 ‘한국의 소녀상’에 대한 글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기획에서 오화섭 교수는 한국의 소녀를 ‘신비로움’으로 언급하는데 글의 주제도, 사진의 전말도 모두 알 수 없이 모호하게만 써내려간다. 그럼에도 주제는 ‘소녀를 지키겠다’고 말한다. ‘소녀는 왜 어른들이 싸우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인류를 타락시키는 범죄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왜 어른들이 싸우는지, 또 갑자기 이 싸움이 왜 유행사태까지 발전하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이 사건이 인류를 타락시킨다는 내용이고 이런 사태에 대해 관심을 두지 말라고만 말한다.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소녀’와 ‘어른’을 의미론적으로 대립시킨 채 ‘소녀’를 어른들의 세계 바깥에 위치시키려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소녀상을 여전히 당위적으로 규정하려는 언설로서 ‘소녀’를 통해 규범적인 학생의 상을 담아낸다.

소설은 대부분의 작품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그렸습니다. 가까운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있는 소재를 못보고 애써 먼데서 자신없는 세계를 소재로 선택한 것은 힘없는 아이가 무거운 쌀가마를 욱심낸 격입니다. [...] 시부문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자기 가슴에 사무쳐 오는 절실한 것을 노래하려 하지 않고 흔히 말하고 있는 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흉내내려는 경향이 너무도 뚜렷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절실한 감정을 표현한 사람도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사춘기에는 백퍼센트가 시인이라 한다지만 혼자 간직하는 일기장에다 적어두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많은 사람과의 경쟁에 나설때는 그리고

40) 오화섭, 『한국의 소녀상-소녀 그것은 신비의 계곡』, 『여학생』, 1965.12. 70쪽.

이것을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먼저 시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들이 모여와 우는 내 초록색 커튼이 있는 / 창가에서 아침은 얼마나 찬란한 사랑인가/꽃들의 가슴에서 비듯한 샘물처럼 맑은 음악이[...].정결한 트랙에서 서서 원갓 서러움을/별빛에다 펼쳐놓고/우리도 하나의 자연이면 그만인 것들//아아 크리스티나 로젯티.⁴¹⁾

이는 여학생의 글쓰기를 통해 강화, 독려된다. 『여학생』 재창간 기념으로 30000원 고료 현상문예를 공모하는데 한 심사자는 입선한 작품들에 대한 두루 평하는 글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그리는’ 경향에 대해 언급한다. 일례로 입선한 한 학생의 글에서는 ‘아아 크리스티나 로젯티’를 마지막 절구로 쓰는데 ‘찬란한 사랑’, ‘하나의 자연’ ‘원갓 서러움’ 등의 시상이 분산된 채 ‘크리스티나 로젯티’라는 시인의 이름으로만 봉합되고 있다. 소녀의 감수성이 지시하는 지시대상이 사라지면서 감상만 남은 결과이다.⁴²⁾ 이는 소녀의 감상이 로젯티와 접촉한 후 ‘로젯티’의 기호만이 남아있을 뿐 그 이름이 지향하는 세계인식이 빠져있는 결과이다.⁴³⁾ 그런데 이런 현상을 ‘소녀적인’ 글쓰기로 환원되고 있다.

41) 『본지창간기념 현상문예입선자발표』, 『여학생』, 1966. 8. 359-367쪽.

42) 실제로 당시 학원세대들이 읽었던 문학작품들은 대개 외국 작품들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이후로까지 이어지는데, 이를테면 1964년 대한출판협회에서 공모한 독후감상문 입선작에서 여학생의 작품들은 『인형의집』, 『전원교향곡』, 『제인에어』 등으로 여성과 소녀가 주인공인 작품으로 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독후감에 대한 평에서도 ‘여성적인 글이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절실하게 이해되었다’는 평으로 감상의 내용에서도 성차에 따르는 감수성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43) 당시 하이네, 릴케, 로젯티의 시가 권장되던 것을 감안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구 이기는 하나, 로제티가 말하고자 바의 내용이 전혀 포착되지 않은 채 번역의 흔적만이 소비되고 있다. 이와관련 오혜진과 박지영의 논의를 참고해보면, 오혜진은 1960년대 문학소녀가 실존주의 사상에 접촉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지성’을 폄하하며 가치 절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오혜진, 앞의책), 박지영은 한국에서 샤르트르 번

1960년대 청년은 문학/소녀의 절합을 통해 재구성되면서 문학의 상징 투쟁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앵그리영맨’으로 표상된 전세계적인 전후세대 의 흐름은 문학장 내부로 이입되지 못한 채 ‘문창’의 문화와 분리된다. 이 과정에서 전후세대 청년문화로 부상한 앵그리영맨, 미국의 비트족, 일본의 태양족 등의 로스트제너레이션 층의 흐름은 한국에서 단절되거나 왜곡되었다. 전후세대의 저항과 열기가 한국에서는 ‘경박한 청소년’들의 ‘폐풍’으로 치부되면서 결과적으로 ‘문창’의 문학이 이 흐름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다시말해 1960년대 전세계적으로 풍미했던 ‘앵그리영맨’ 등의 형상이 민족주의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청년문화와 분리되는데, 이 과정은 1960년대 문학 장이 안게 된 또다른 딜레마이다. 이는 1950년대 자유주의와 교양주의의 맥락과 문학독자를 폄하하는 이러한 담론적 배치 속에서 야기된 결과로 보인다.⁴⁴⁾ 문학소녀와 문학청년의 대립과 분리, 이 속에서 문학장이 안게 된 것은 1950년대 한글세대의 역동적인 교양주의와 민주주의의 흐름들에 대한 일정한 거리두기이다.

역이 반공주의 영향하에서 오역되거나 의역되는데 이러한 번역 양상이 4.19 이후에도 계속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지영, 『번역된 냉전, 그리고 혁명 ; 사르트르, 마르크시즘, 실존과 혁명』, 『서강인문논총』 31, 2011.8, 89-135쪽.)

44)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은 전세계적 현상이었다. 앵그리영맨이나 비트족 태양족은 이런 현상을 빚낸 표현이다. 그러나 1960년대 공론장 속에서 청소년들의 이런 반항과 분노는 ‘폐풍’으로 일거에 배제된다. (“특히 최근 이삼년래로는 미국의 비트족이나 일본의 태양족 내지 번개족들처럼 스피드와 스틸 씩스에 말초신경적인 쾌락을 찾으면서 술과 마약과 범죄로 전락하는 폐풍이 어느 겨를에 우리나라의 경박한 청소년들에게도 전염되는 듯한 감이 있는 것이다.” 『10대소년들의 난행사건이 의미하는 것』, 『경향』, 1960.10.20.)

4.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를 기억하며

이 연구는 해방이후 '문학소녀' 표상이 문화정치의 핵심적 표상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한다. 만약 '문학소녀'를 단지 젠더체계의 불평등의 결과로만 사유하거나 혹은 여성의 본질적 특징을 드러내는 기호로만 전제하면 '문학소녀'를 둘러싸고 진행된 담론투쟁의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학소녀'가 책읽는 여성에 대한 이질감이 드러난 표현인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1950년대까지 '문학소녀'는 학생들이 처한 문화론적 기반에서 파생된 독자의 이름이었다면, 1960년대에 '문학소녀'는 단지 구별과 분리의 표현이 아니라 적대와 적폐를 상징하는 이름으로까지 재구성된다.

1950년대까지 '문학소녀'의 기호는 교양주의의 문화론적 기반을 통해 민주주의의 열기와 개인의 실존적 권리에 대해 상상하거나 다양한 문학장르를 혼종적으로 수용하는 학원세대의 존재론적 기반이었다. 물론 반공적 민족주의가 이 흐름을 끊어내면서 당대의 민족적 상흔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녀'의 감수성에 기대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문학소녀가 단일한 개념으로 표상되지는 않았다면 4.19를 거치면서 '문학소녀'를 둘러싼 여러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실험과 상상이 배제되는 과정에서 '문학소녀'는 민족적 의제에 반하는 적대의 기호로 재구성된다. 이는 4.19와 5.16 이후의 담론 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우선 박정희는 민족의 새로운 주체로 '청년'을 지목하며 5.16의 정신을 설파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문학소녀의 형상은 '노동하지 않은 자'의 대리적 표상으로 둔갑되며 국가의 적으로까지 표상된다. 이 과정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는 공공의 적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문학소녀의 형상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로 기호화되었다.⁴⁵⁾

‘문학소녀’는 해방 이후 민주주의 원리를 내면화한 한글세대로서, 반공적 민족주의의 제도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나, 교양주의의 문화론적 토대 속에서 성장한 주체의 이름이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린-학생’인 것만은 분명하나, 이 사실은 1960년대 4.19의 의의를 정당하게 계승하는 연사가 되기는 어렵다. 이들이 지닌 바로 그 문화적 토양과 교양이 기성세대와 결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 다시말해 ‘문학소녀’가 접속했던 혼종적인 문화의 열기를 청년문화의 진취성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1960년대 ‘문창’이 문학소녀의 문화적 계기를 놓치는 것은 1960년대 청년문화의 딜레마로 보인다.

45) 이선미는 1950년대 정비석의 신문연재소설을 분석하면서 문화적 활기와 공론장이 형성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19이후 이러한 활기가 경제제일주의로 일원화되고 있다고 쓰고 있다. (『공론장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대중서사연구』 제26호, 2011.12, 111-150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학원』, 『사상계』, 『여학생』, 『여원』

2. 논문과 단행본

- 권명아,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272-275쪽.
- 권보드래·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3. 58-59쪽.
- 김건우, 『1964년의 담론지형』, 『대중서사연구』 22호, 73쪽.
-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2008.
- 김윤경, 『1950년대 여성독자의 형성과 문학규범의 변화』, 동국대 박사논문, 2012.
-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18호, 2007.12, 387-416쪽.
- 남재희, 『68혁명 40주년과 청년문화론』, 『관훈저널』, 관훈클럽, 2008.6. 97면.
- 박숙자, 『100권의 세계문학과 그 적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4. 3.
- 박승훈, 『여학생문예작품집』, 1954. 평문사, 14쪽.
- 박지영, 『번역된 냉전, 그리고 혁명 : 사르트르, 마르크시즘, 실존과 혁명』, 『서강인문논총』31, 2011.8, 89-135쪽.
- 소영현, 『대학생 담론을 보라』, 『문학과 사회』, 2010.2. 266-268쪽.
- 오영숙, 『아빠와 소녀』, 『영화연구』, 2009.12. 435-458쪽.
- 오혜진, 『카뮈, 마르크스, 이어령』, 『한국학논집』, 2013.6.137-178쪽.
- 이선미, 『공론장과 '마이네리티 리포트』, 『대중서사연구』 제26호, 2011.12, 111-150쪽.
- 이중환, 『청년문화론』, 현암사, 1975.
- 정미지,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과 독서양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1.
- 한완상, 『현대사회와 청년문화』, 법문사, 1973.

Abstract

Admit Literary Girl

: The Cultural Politics of ‘Literature/youth’ after 4.19

Park, Suk-Ja (Sogang University)

‘Literary girls’ were the nuclear representation of cultural politics after the liberation. In the 1950’s, ‘literary girls’ were the sign of literary readers of the ‘hakwon generation’ taking liberalism as their basis of culture while in the 1960’s, ‘literary girls’ were the sign of negation and imitation degraded as the sign of post-historical hostility contrasting semantically against ‘youths’ represented as the subjects of history. After the liberation, ‘literary girls/boys’ were literary readers of the Hanguk generation that had acquire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lthough in the 1960’s, the ground for ‘what to be literature’ was formed, a variety of democratic dynamisms or trends they held beforehand were excluded or underestimated in the public field of discussion during the 1960’s. It is the result of the fact that in the 1960’s, the meaning of ‘youths’ as the subjects of history was set excessively in the nationalistic background. On account of this, within the contrast between ‘local/foreign’, ‘body/mind’, or ‘labor/playfulness’, the semantic ground for youths, literary girls ‘reading the book of French poems’ were discussed as the sign of a deep-rooted evil hindering national development, and furthermore, they were underestimated as the ‘imitation of literature’ within the field of literature. After the 1960’s, ‘literary girls’ did not remain in the descriptive definition of ‘girls who like to read literary works’, but the books they chose to read were underestimated as the ‘imitation of literature’, too, and even the dynamic cultural flow after the war came to be excluded as well. Therefore, various trends or pursuits achieved first by the literary boys and girls in the 1950’s got to be segmented, so it led to the conservatism and rigorism of ‘muncheong’ in the 1960’s.

(key words: Literary Girl, Literature/Young man, 4.19/5.16, Cultural Politics, field of literature, literary readers, culture, principles of democracy,

66 대중서사연구 제20권 2호

semantic ground.)

■ 위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7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